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 오염 및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게 됐다.

경기도는 중·소사업장 및 아파트 등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버너를 대기오염 물질이 적은 친환경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로 연료의 연소 조건을 조절해 질소 산화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일반 버너에 비해 질소 산화물은 60% 정도 적게 배출하고 연료비도 약 5%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시설팀은 매년 에너지 절감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원은 Green Hospital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02 진료협력센터, 협력병원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7월 18일과 27일 일산복음요양병원, 고려튼튼 정형외과, 클린성모외과와 진료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 기관 간 상호 신뢰 형성 및 균형적인 의료 발전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진료협력센터 센터장 이준규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산복음요양병원 최성혜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 교류 및 진료협력을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라고 말했다.



03 교직원들을 위한 삼복더위를 이기는 보양식 ‘영계백숙’제공

영양팀은 7월 27일 무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중복 이벤트로 ‘영계백숙’을 제공했다.

중복을 포함한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일명 ‘삼복더위’라고 일컫는다. 삼복 기간에는 휴가가 이어지고, 몸보신 음식을 먹는 등 더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에 이벤트로 제공된 ‘영계백숙’은 수삼과 대추, 마늘을 넣어 깊은 맛으로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환자식은 선택식으로 ‘닭곰탕’을 제공했다.

직원들은 여름 보양식인 영계백숙과 후식으로 차려진 시원한 수박까지 원기충전 밥상을 먹고 힘이 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고생하는 교직원들에게 영양팀의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라며, ‘잔반 ZERO’에도 적극 실천 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